

해외석유정보

본 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일본의 주유소, 5년간 5천개 감소

멈추지 않는 감소세

일본의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주 품질확보법에 기초한 99년도말(2000년 3월말) 현재 주유소(고정식, 이동식) 수가 55,153개로 전년 대비 1,291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동식은 108개 감소한 1,846개이다. 고정식은 1,183개 감소한 53,307개이다.

주유소수는 특석법 폐지를 앞두고 경쟁 격화로 감소로 돌아선 95년도 이후 5년 연속 줄다가, 97년부터는 3년 연속 1,000개 이상 감소했다. 98년도는 전년 대비 1,819개 감소했는데 76년의 휘발유판매업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99년도는 약간 감소폭이 축소되었지만, 감소 추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는 업계 관계자는 없다.

일본의 전국석유협회가 작년에 조사한 석유제품판매경영실태조사(98년도 결산)에서는 판매업자의 평균영업이익률은 -0.3%로 55.2%가 적자이다. 특히, 주유소전업업자의 영업이익이 -1.3%라는 것을 보더라도 장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주유소는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감소율은 대도시지역 2.7~4.0%, 지방 0.3~1.2%이다. 민족계 원매회사 영업담당자는 이러한 지역간 차이에 대해 '대도시근교에서는 주차장 수요도 있어 주유소 부지를 전용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 폐쇄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비해 지방에서는 생계를 연료유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원매회사의 자회사 재편

원매회사는 채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열특약

점이 운영을 포기한 곳이나 과잉투자로 판매자회사의 수익악화요인이 되는 곳 등 채산성이 떨어지는 회사소유 주유소의 폐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판매자회사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체제의 구축은 2000년 3월부터 연결결산 이행에 따라 적자를 판매자회사에 강요하지 않게 된 원매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코스모석유가 100% 출자특약점 12개사를 통합해 7월에 발족시키는 코스모석유서비스나 Japan Energy의 JOMO Net에서 나타나는 석유판매자회사의 지역별 재편 등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휘발유 수익 축소에 견딜 수 없는 특약점은 스스로 주유소를 폐쇄하고 있다. 20개 정도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특약점은 별도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외관부문이 강한 경우가 많다. 4,5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특약점이 제일 어렵다'(민족계 원매회사판매담당자)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한다면 판매자회사의 직영주유소뿐만 아니라 대도시권에서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폐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주유소 시장 격화는 아직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다 신속한 코스트절감, 경영노력이 도태의 파도를 넘는 키워드이다.

<연료유지신문, 2000 6. 24>

일본 석유정제회사의 2000년 설비투자계획

일본 통산성은 6월 16일, 2000년도 민간설비투자동향을 정리해 산업구조심의회 산업자금부회에 보고했다. 석유정제원매회사등 36개사의 금년도 투자계획액(공사

기준)은 1,347억엔, 전년도 실적 전망액 대비 17.8%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정유공장 부문이 전체에서 42.6% 감소한 데 반해, 유통시설부문은 자동차정비관련시설이나 셀프화 등으로 주유소가 370억엔(12.7%) 증가하였고, 저유소도 33.1%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별표 참조>

99년도 실적 전망(지난번 조사기업 36개사 기준)은 전년도 대비 24.4% 감소한 1,738억엔이다. 휘발유증벤젠 저감화장치 투자로 공해방지시설이 19.3% 증가했지만 정유공장 부문 전체에서는 921억엔으로 33.0% 감소했다. 주유소 투자도 452억엔으로 14.3% 감소하는 등 투자안건 전망에 따라 축소되었다.

일본 석유정제원매회사의 유통부문 투자

(단위: 백만엔, 괄호안은 전년대비 %)

		98년도	99년도(실적전망)				2000년도
		(실적)	상반기	하반기	합계 ①	합계 ②	(계획)
주	토지대	20,235	3,430	8,656	12,086(59.7)	6,814(33.7)	4,326(63.5)
유	시설비	32,516	12,318	20,820	33,138(101.9)	26,006(80.0)	32,648(125.5)
소	합 계	52,751	15,748	29,476	45,224(85.7)	32,820(62.2)	36,974(112.7)
저	토지대	0	0	0	0(-)	0(-)	430(-)
유	시설비	10,430	4,181	5,510	9,691(92.9)	7,449(71.4)	9,485(127.3)
소	합 계	10,430	4,181	5,510	9,691(92.9)	7,449(71.4)	9,915(133.1)

(주) 표안의 98년도 실적과 99년도 실적 전망 합계 ①은 지난 번 조사 공회회답 기업 36개사 기준.

99년도 실적 전망 합계 ②는 이번 조사 공회회답기업 36개사 기준.

2000년도 계획의 괄호안은 합계와의 비교.

금년도는 정유공장 부문에서는 안전방재시설이 27.3% 증가한 14억엔, 부대시설이 236억엔으로 6.8% 증가했지만, 정제시설 본체는 254억엔으로 33.7% 감소, 저유시설은 80.7% 감소한 512억엔이 전망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595억엔으로 42.6% 감소할 전망이다.

주유소와 저유소를 합한 유통시설부문 투자는 577억엔으로 23.8% 증가한다. 주유소 투자는 369억 7천4백

만엔으로 12.7%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모석유는 연도내에 200개 정도의 Car care 편의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出光興産은 셀프형 등이 5~7개 신설된다. Japan Energy는 토지 취득이나 시설 개조를 중심으로 63억엔을 투자하는 등 각사의 신설 억제와 개조중시 방침을 반영한 투자계획이 반영되었다. 석유산업의 시설투자는 92년도를 피크로 8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연료유지신문, 2000. 6. 17>

OPEC의 원유전략과 가격형성

불안정한 원유 가격변동

비수기에 들어갔는데도 원유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PEC이 4월부터 원유생산상한을 1년전 감산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켜 원유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원유재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6월21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대폭적인 추가증산을 단행하지 않으면, 성수기 때 수급이 타이트해져 또 한번의 원유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예를 볼 때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OPEC의 결속력이 금세 약해져 증산경쟁에 돌입해 공급과잉 상태가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이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증산으로 돌아선 이후도 가격이 크게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원유수급상의 fundamentals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96년 6월 제100회 총회에서 OPEC는 생산상한을 2,503.3만b/d로, 97년 11월 103회 총회에서는 다시 2,750만b/d로 늘렸다.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급감까지 겹쳐 공급과잉이 표면화되었고 원유가격이 급락했다. 98년 3월 총회에서는 124.5만b/d, 6월 총회에서는 135.5만 b/d 감산에 합의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98년 11월에는 Dubai원유의 spot가격은 10.02\$/B까지

하락했다. 96년 11월 가격인 21.78\$ 에 비하면 2년간 반 이하로 원유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OPEC는 99년 3월 총회에서 170만 b/d 추가감산에 합의, 세 차례에 걸친 감산량은 430만b/d에 이르렀고, 이라크를 제외한 OPEC의 생산상한은 2,297.6만b/d까지 낮아졌다. 그 결과, 2000년 2월에는 원유가격이 Dubai base로 24.68\$로 걸프전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3월 109회 총회에서 이란, 이라크를 제외한 OPEC 9개 회원국은 생산상한을 99년 3월 총회의 추가감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증산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인 증산 실시를 표명했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 OPEC는 145.2만b/d를 증산한 셈이다. 이러한 대폭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은 그다지 내려 가지 않고 있다

펀더멘털이 바뀌었는가

이번 봄 OPEC총회는 증산합의와 아울러 6월21일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원유가격 동향을 다시 평가하여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원유가격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 들어 증산을 부정하는 발언이 계속 나와 시장에서 상승재료로 작용했다. 5월2일에는 OPEC의 로드리게스 의장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6월 임시총회에서 추가증산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고 발언했고, 8일에는 사우디의 나이미 석유장관이 「원유가격이 계속해서 현재 상태로 가면 6월총회에서 추가증산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comment하고, 9일에는 알제리의 하릴 에너지장관도 「6월총회에서 증산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미국의 석유수요예측이나 IEA의 2000년 하반기 세계 석유수요 예측이 상향수정되었다고 하는 뉴스도 인상을 부추겼다. 게다가, 원유재고나 휘발유 재고변동, driving season을 앞둔 휘발유 시세 인상 움직임도 타이트한 원유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OPEC는 적정 가격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basket 가격 기준으로 22~28\$/B의 price band제를 이번 봄

총회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휘발유 성수기를 지나서 이 상태대로 초가을의 성수기로 갈 경우, 추가적인 원유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소리는 많다. 작년 봄 감산합의 이후, 원유가격 회복에 OPEC이 성공한 것은 1년간 주요산유국의 감산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감산준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OPEC산유국이 감산에 동조하였고 메이저도 상류부문 수익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원유가격인상에 협력적이었다. 미국의 호황과 아시아의 경제회복 등에 따른 수요증가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수급의 fundamentals는 제작년 원유가격 하락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변했다.

원유수급의 향방

IEA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99년 세계석유 수요는 7,530만b/d를 기록해 98년의 7,400만b/d보다 130만b/d 늘었다. 공급면에서는 OPEC의 원유생산량은 감산에 의해 작년의 2,800만b/d에서 2,660만b/d로 140만b/d, 비OPEC생산량도 4,470만b/d에서 4,460만b/d로 10만b/d, 따라서 세계석유공급량은 150만b/d 줄어 7,400만b/d에 머물렀다. 98년은 원유재고가 150만b/d 늘어 수급이 완화된 데 비해 99년은 130만b/d가 줄어 잉여재고는 거의 소멸되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재고가 축소되는 등 수급환경이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바뀌고 있다. OPEC의 6월 임시총회 결과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계원유재고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94년 이래 99년이 5년만이다. 더구나, 94년의 축소량은 연평균20만b/d에 지나지 않았지만, 99년은 130만b/d로 6배 이상 많다. 97년과 98년은 각년도 4/4분기 원유재고가 늘어났지만, 99년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비수기인 2/4, 3/4분기에 재고가 증가, 성수기인 4/4,1/4분기에 재고를 방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 3년간의 원유수급 balance는 예년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의 원유수급 balance가 이전과 같은 정상 pattern을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원래대로

라면 비수기인 2/4분기에는 원유수급이 안정되어 재고가 늘어나지만,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IEA의 수급 balance상으로 2000년 세계석유수요는 99년의 7,520만b/d에서 7,700만b/d로 180만b/d 늘어난다. 비OPEC 공급량이 98년 대비 110만b/d 증가한 4,560만b/d, OPEC의 NGL 생산량이 10만b/d 증가한 290만b/d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OPEC원유에 대한 수요는 빼고 2,850만b/d 이다. 그 후, IEA는 수요예측을 상향 수정했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규모는 더 크다.

그러나, 감산의 위력과 모미를 맞본 OPEC는 수급조정에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대통령선거 전에 미국의 증산압력이나 비OPEC산유국의 증산의욕도 강해지겠지만, 예전과 같이 원유공급과잉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은 적다. 6월21일 임시총회는 OPEC이 원유가격 결정에 다시 주도권을 쥌 수 있을 지 앞으로의 원유가격형성의 향방을 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Oil Report, 2000. 6. 5>

일본내 새로운 Exxon-Mobil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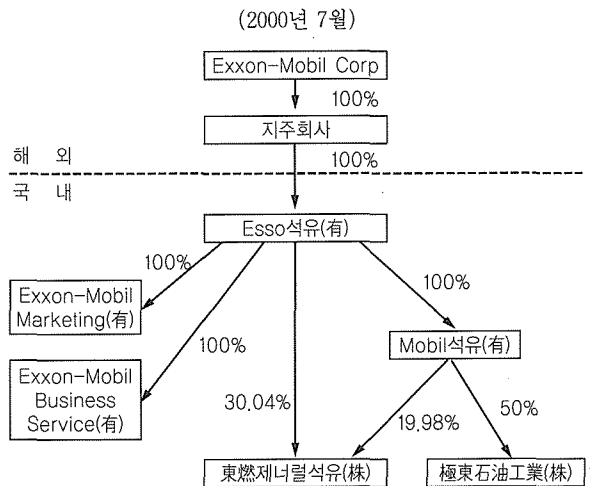
일본의 Esso석유는 5월16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Esso Eastern이 소유한 제너럴석유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제너럴석유에는 Esso Eastern이 48.6%, Esso석유가 1.5% 출자했었지만, 이번에 Esso석유가 Esso Eastern으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 제너럴석유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증가 결과, Esso석유의 자본금은 200억엔에서 500억엔으로 늘었다. 또한 같은 날, Esso석유는 Esso Eastern이 소유한 東燃(토넨) 주식 취득을 개시했고, Mobil석유는 Mobil Petroleum이 소유한 東燃 주식 취득을 개시했다. 일본내 Exxon-Mobil 그룹은 사업효율 향상을 위해 여러 시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Exxon-Mobil Marketing과 Exxon-Mobil Business Service가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제너럴

석유와 東燃이 합병하여, 東燃제너럴석유로 발족한다.

이번 주식취득은 지금까지 일본내 계열회사와 해외 계열회사가 갖고 있던 자본관계를 일본내 Esso석유를 모회사로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2단계 개편에서는 Mobil Petroleum이 보유한 Mobil석유의 지분 전부를 Esso 석유가 취득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일본내 주요 계열사는 일본법인의 모회사 밑으로 재편된다.

<석유문화, 2000. 6>

일본내 Exxon-Mobil 계열 자본관계



BP Amoco의 중국시장 진출

중국에서 유명한 거점을 얻는다는 것은 석유·가스업계 관계자에게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중국정부는 거대 메이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는 메이저 중에서 BP Amoco만 참여하고 있다.

CNPC(중국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로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페트로차이나에 BP Amoco는 3월, 약 6억 2,000만\$를 출자해 2%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 주식은 경영상 그리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BP Amoco의 지원을 통해 중국정부 내부에 '호의'를 만들기 시작한 것

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 수입터미널, 발전소, 풍부한 연해지역의 가스판매, 시베리아동부나 사할린으로부터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석유정제, 제품판매부문에 대한 참여 등은 모두 메이저가 지향하는 거래조건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中國石油와 상장 주간사인 모건스탠리는 금년 가을, 20억~30억\$의 주식을 공모할 예정이다.

BP Amoco는 CPC(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에 2%의 출자를 고려중 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관계 구축과 함께 더 나아가 6억\$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야심찬 계획의 완전실시에는 중국의 세분화 시장에서 종합전략의 구축을 지향하는 메이저는 국내종합기업인 CNPC와 SINOPEC 쌍방의 강력한 관계를 포함하는 석유·가스시장과의 강력한 관계가 필요하다.

98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CNPC와 SINOPEC은 대등하게 되지 않았다. CNPC는 중국의 상류매장량의 주요 부분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SINOPEC은 정제 자산과 권한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시장구상은 풍부한 연해지역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규제가 더욱 복잡한 미개발 서부지역에서는 사업환경이 더욱 나쁘다.

BP Amoco는 페트로차이나의 7천개에 비해 12,000개의 안정된 주유소망을 갖고 중국 총 정제능력 450만 b/d의 55%를 좌지우지하는 SINOPEC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중국 광동성 심천의 주요 LNG수입터미널의 결정에 있어서 SINOPEC의 의미는 BP Amoco가 추진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앞바다의 거대 가스매장량과 인도네시아의 10조 8천억입방피트의 가스전을 현금화하는 대구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너와 경쟁하는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생기는 이익 등의 이해의 충돌은 중국시장의 복잡함, 규모, 단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BP Amoco는 광동성의 페트로차이나와의

합작 정제사업에서 이미 SINOPEC의 중심지역에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0. 7. 5〉

R·D·Shell의 경영방침과 실천

세계 제일의 경영규모를 자랑하던 R·D·Shell이 작년 가을, Exxon-Mobil에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동사는 그 자리를 되돌릴 비책을 준비하고 있고 착실히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동사의 경영이념은 '세어보다 이익중시'인데, 대형합병은 향후 당국의 심사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판단, 'chance'가 있으면 실행한다는 장기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동사의 최근 원유생산량은 230만b/d(Exxon-Mobil은 256만b/d)이다. 향후 상류부문에 중점투자해 매년 5%의 원유증산과 천연가스 증산·증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를 위해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아제르바이잔을 중시, 천연가스에서는 나이지리아, 오만, 이집트, 미국 걸프만, 이란, 필리핀, 2004년 이후는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노르웨이, 방글라데시에서 증산·판매확대, 특히 중국, 인도시장 진출에 의욕적이다.

경영방침은 '수익력·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하고 ①조직의 합리적 변혁과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제, ②권한의 이양(전 취업자의 책임체제), ③코스트저감노력(내년까지 40억\$ 목표), ④對투자자본수익률은 내년까지 15%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익향상책으로서 ①석탄사업에서 철수, ②채산성이 많지 않는 정유공장 폐쇄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정제과잉은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원유가격은 금년은 20\$/b 정도, 향후 5~10년간, 평균 15~17\$, 경영계획은 14\$/b정도에서 이익을 내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순간석유정척, 2000. 7. 10〉